

종합·해설

# “반값등록금 MB약속 지켜라”

## 국회 상임위 첫날...여야, 저축銀 사태·중수부 폐지 공방

국회는 13일 교과위와 기재위·정무위·법사위 등 8개 상임위를 본격 가동,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는 특히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저축은행 사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과위=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대신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이행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관련 행사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나라당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반값 등록금’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13일 교과위와 기재위·정무위·법사위 등 8개 상임위를 본격 가동,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는 특히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저축은행 사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과위=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대신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이행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관련 행사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나라당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반값 등록금’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세 최고세를 인하를 철회하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4조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갑세’ 철회를 통해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감세 철회에 대해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반값등록금은 많은 등록금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민생대책이고 복지정책”이라며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를 인하를 철회하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4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는 지난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와 글로벌 경제위기 기로 다소 줄었지만 경기 회복세로 접어들 2010년에는 과거 ‘갑세→세수 감소→경제성장→세수증가’의 선순환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세를 지지했다.

◇법사위=대검 중앙수사부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쟁점이 됐다. 중수부 존폐 문제에 대한 여야의 찬반을 대변하듯 이번 수사에서의 중수부 역할론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간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중수부 수사는 이번 저축은행건을 제외하고 모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였다”며 “중수부를 해체해도 권력형 비리와 재벌수사를 잘 할 수 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지금 중수부만 쳐다보고 있다. 철저히 추궁해 은닉했을 수도 있는 자금을 환수해 피해보상에 써달라는 간절한 염원 때문”이라고 옹호했다.

여야 정치권의 ‘사법개혁안’이 검찰의 반발 등 논란을 불러 일으킨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무려 1년4개월 동안이나 논의해왔던 검찰과 법원 개혁안이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비판 여론과 함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혁위)는 13일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관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 등 4개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 이들 사안을 더 이상 논의않고 특위 활동을 이날 말 종료

# 국회 ‘사법개혁’ 끝내 무산

## 사개혁위, 이달말 활동 종료...중수부 폐지 등 핵심쟁점 논의 중단

여야 정치권의 ‘사법개혁안’이 검찰의 반발 등 논란을 불러 일으킨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무려 1년4개월 동안이나 논의해왔던 검찰과 법원 개혁안이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비판 여론과 함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혁위)는 13일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관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 등 4개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 이들 사안을 더 이상 논의않고 특위 활동을 이날 말 종료

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개혁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개혁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4개 쟁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개혁위 활동은 6월 말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달 17일과 20일, 22일 사흘간 전체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개혁위의 성과에 대해 이들은 “전관예우 금지법은 22년간 만들어 보려고 했던 법안”이라며 “대법관 제

정 자문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 검찰총장추천위원회 등을 법제화한 것과 압수수색에 대해 법적 제약을 가한 것도 국민 기본권을 신장한 일보 전진”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이 중수부 폐지 등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수부 폐지나 특별수사관 설치 등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아무런 논의에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양당 지도부에 맡기는 측면이 있으며 시간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7년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관련 행사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사진(왼쪽 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과 엠비(MB)는 약속을 지켜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 채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박근혜-손학규 ‘진검승부’

## 국회 기재위 첫 조우...의정활동 경쟁시작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조우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 경쟁을 시작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나고 오전 10시20분쯤 기재위원회에 출석해 먼저 도착해 있던 박 전 대표에게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만나게 되네요”라며 악수를 건넸고, 박 전 대표도 웃으면서 응대했다.

하지만, 두 유력 대선주자의 이날 상임위 집의방식은 대조적이었다. 박 전 대표는 구체적인 정책 대

안 제시에 주력했고 손 대표는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는 “지금 4대 보험 등 사회보험에 단 하나의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가입자가 283만 명이나 되며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또 이중 83%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25% 정도밖에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사방이 지뢰밭”이라며 “가계부채는 800조나 되고 국가채무는 400조에 육박하고 있다. 청년실업·전세대란·불가금등·고용감소·경기침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의 몰락 등 전체적인 민생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민생불안은 개인의 책임이기보다는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이 정부 들어 4년 내 적자이고 국가부채도 4년 동안 136조가 증가하는 등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공공부채까지 합하면 700조가 넘어서 세계 3대 채무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며 “문제는 가치와 철학이다.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 ‘반값등록금’ 당내 갈등 조짐

## 지도부 일방통행 비판...사립대 재정투입 ‘부적절’ 지적도

민주당 내에 당의 반값등록금 대책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현재까지는 내놓고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지만 공론화할 경우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판의 요체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도부의 일방통행식 운영, 지난달 31일 의원워크숍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등록금 대책의 초점을 소득 하위 50% 계층에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

집회에 다녀온 다음날인 지난 7일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수혜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국공립대에 대해선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2일에는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반값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국공립대에는 고등교육재정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사립대에는 고등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신설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현실성을 의심하고 있고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에 더해 부실대학 정리 등 옥석 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몽경 경제관료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입학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당정책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안원환 대변인이 13일 전했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공청회에서는 학생 대표들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표들, 대학·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방라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여, 등록금 완화 내일 ‘국민공청회’

한나라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당정책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안원환 대변인이 13일 전했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공청회에서는 학생 대표들과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표들, 대학·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방라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지원 “검찰이 내 주변만 조사”

## 표적수사 의혹 제기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검찰이 자신에 대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구남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 중수부) 임모씨를 불러 ‘박태규와 박지원’이 만난 사실을 두 가지만 물어달라’는 식으로 조사를 했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확인 절차를 거쳐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다”고 답하자 박 전 원내

대표는 “임모씨가 6일 (중수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7일 오후 3시에 검찰에 갔다”며 구체적 상황을 제시했다.

이에 당황한 이 장관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한 뒤 임모씨를 조사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는 다만 “임모씨에게 ‘박태규를 아느냐’고 물었던 일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이 “(중수부가 박지원-박태규 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는데 박 전 원내대표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라고 되물자 박 전 원내

대표는 “임모씨가 6일 (중수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7일 오후 3시에 검찰에 갔다”며 구체적 상황을 제시했다.

이에 당황한 이 장관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한 뒤 임모씨를 조사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는 다만 “임모씨에게 ‘박태규를 아느냐’고 물었던 일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이 “(중수부가 박지원-박태규 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는데 박 전 원내대표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라고 되물자 박 전 원내

###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할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었던 클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TEL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구 동명동 2가-11번길 11 (대인동) 대인동 심일부동산

### 나라공인중개사

####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 지 : 10980㎡, 일야 : 13937㎡
- 케오미일 23평형 3개동, 케오미일10평형17개동 관리종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원비,수리한경치,수원원,기동원적합 여유대지많은,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만원) • 실투자금 : 11억1천

####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울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 건물109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7개 엘리베이터 있음 울산단지입구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송기금) • 실투자금 : 6억4천

####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레리움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

####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대 지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 2억2천5백만

####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북상면 신진리

- 전.담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 지대가 높아 과실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정용지및잡종지 : 8480㎡ 공평부지 : 3192㎡의 잡종지
- 담양읍과방면2차선 도로점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화순 북면 수원원양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 일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신약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 1500평 (6차선 도로점) (700평)
-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 건물 :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 8.9, 10.9m
- ▶ 호이스트 : 유, 유, 유
- ▶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도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 시 많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다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효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